

2023 Catholic Korea Peace Forum

NOW-나우-나우(2023 CKPF)

Dialogue between the Bishops and NOW나우-나우 on October 28, 19:00 - 21:30

주교님들과 나우들의 대화 (10월 28일 19:00-21:30)

司教様とナウメンバーの対話 (10月28日 19:00-21:30)

NOW-나우-나우

“NOW” is the gathering of younger generations from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articipating in the 2023 Catholic Korea Peace Forum. Now-나우-나우 symbolizes ‘Here and Now,’ ‘God’s present moment,’ and ‘Forging New Connections.’

“나우”는 2023 가톨릭코리아평화포럼에 참가하는 한국, 일본, 미국의 젊은 세대들의 모임입니다. “나우”는 “나와 우리” ‘지금 여기’, ‘하느님의 현재적 순간’, ‘새로운 관계 맺기’를 상징합니다.

「ナウ」は、2023カトリック朝鮮半島平和フォーラムに参加する韓国、日本、米国の若い世代の集まりである。「ナウ」は、「今、ここ」、「神の今この瞬間」「新しいつながりを築くこと」を象徴している。



Jenna Pae

Jenna Pae is a junior at Georgetown University studying International Relations. She is an immigrant from Seoul, South Korea, and was raised between Seoul and the American Midwest. She is passionate about Korean peninsular affairs and Korea-US relations.

제 이름은 제나 배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3학년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출신으로 서울과 미국 중서부 지역을 오가며 성장한 이민자입니다. 한반도 문제와 한미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私の名前はジェナ・ペです。ジョージタウン大学で国際関係を専攻している3年生です。韓国ソウル出身で、ソウルとアメリカ中西部を歩き来しながら育った移民です。朝鮮半島問題と米韓関係に関心があります。



Question:

As we recogniz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it seems that the memory of the war grows more distant from the minds of people around the world. We are constantly inundated with information about new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that we must turn our attention to. Ye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as urgent and important as ever. What steps must be taken to show that there is an interconnectedness between th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ther issues, such as domestic political issues in South Korea or international security concerns of the US? In other words, how can the Forgotten War be kept relevant and addressed?

질문 :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세계인의 마음속에서 전쟁의 기억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국내외 이슈에 대한 정보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한국 국내 정치 문제나 미국의 국제 안보 문제 등 다른 이슈와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잊혀진 전쟁을 어떻게 다시 시의적절한 의제로 다룰 수 있을까요?

질문 :

停戦協定70周年を迎え、全世界の人々の心の中で戦争の記憶がどんどん遠ざかっ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私たちが注目すべき新たな国内外の問題に関する情報は絶え間なく流れています。しかし、朝鮮半島の平和はこれまで以上に緊急かつ重要な問題です。朝鮮半島の緊張が韓国国内の政治問題やアメリカの国際安全保障問題など、他の問題と相互関連性があることを示すために、どのような措置を取るべきでしょうか。言い換えれば、忘れ去られた戦争を再びタイムリーな議題として扱うにはどうすればよいのでしょうか。



The U.S.A

Hayden Smith

Hayden Smith is a mixed Korean-American political organizer and member of the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where he has helped advocate for a peace trea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nd against U.S.-driven military escalation in Korea and East Asia at large. He has also organized in other liberation spaces including Katarungan DC, a Washington-area affiliate of the International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the Philippines (ICHRP) working to stop militarization and imperialism in the Philippines, and the New Hampshire Youth Movement, a progressive group seeking to empower young people in state and local politics. Hayden was born and raised in New Hampshire in the northeastern United States.

제 이름은 헤이든 스미스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다문화인(mixed blood) 정치 조직가이자 코리아 피스 나우! 풀뿌리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조약과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과 동아시아 전반의 군사적 확장을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군사화와 제국주의를 막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 필리핀 인권 연합(ICHRP)의 워싱턴 지역 계열사인 카타롱간 DC, 주 및 지역 정치에 젊은이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진보적 단체인 뉴햄프셔 청년 운동 등 다른 해방 공간에서 조직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미국 북동부의 뉴햄프셔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私の名前はヘイデン・スミスです。韓国系アメリカ人の政治的組織者であり、 코리아・ピース・ナウ! 草の根ネットワークのメンバーとして、朝鮮戦争を正式に終結させるための平和条約と、米国主導の韓国と東アジア全般の軍事的拡大に反対する活動を行ってきました。また、フィリピンの軍事化と帝国主義を阻止するために活動する国際フィリピン人権連合(ICHRP)のワシントン地域支部であるカタロンガンDCや、州や地域の政治に若者の権限を強化するための進歩的な団体であるニューハンプシャー青年運動など、他の解放空間で組織活動を行ってきました。私は米国北東部のニューハンプシャー州で生まれ育ちました。



Question:

The Korea peace movement is a diverse coalition of secular and religious groups based in many countries, and we are fortunate that international and interfaith cooperation is a growing feature of our work for peace. International, interfaith organizing has afforded us opportunities to grow the Korea peace coalition, both within and outside of Korean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a variety of faith groups contributed to last summer's July 27th Korea peace mobilization in Washington, DC, which included a vigil with Buddhist, Catholic, and Protestant elements, while a Korea Peace Appeal rally outside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brought together Korean, American, and Chinese faith groups.

As we move forward with broadening our coalition across lines of faith and nationality, how do you envision the Catholic Church and the Korea peace movement at large using these relationships to move political leaders on the urgency of de-escalation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hat are some challenges that you anticipate with these next steps? On a related note, how can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nnect Catholics in other countries on the front lines of rising military tensions in the Pacific (such as the Philippines and Vietnam) on the subject of de-escalation and invite them into the mission for peace in Korea?



질문 :

한국 평화운동은 여러 나라에 기반을 둔 세속적, 종교적 단체들의 다양한 연합체이며, 평화를 위한 활동에서 국제적, 종교 간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제적 조직화, 다양한 종교단체들의 조직화는 한국 사회 안팎에서 한국 평화를 위한 연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지난 여름 7월 27일 워싱턴 DC에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가 함께한 철야 집회를 열기도 했고, 뉴욕 유엔 본부 밖에서 열린 “코리아피스어필” 집회에는 한국, 미국, 중국 종교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종교와 국적을 초월해 연대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와 한국 평화운동 전반이 이러한 계기를 활용해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시급성 대해 인식하고 행동하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연대 행동 다음 단계에는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베트남 등 태평양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최전선에 있는 다른 나라의 가톨릭 신자들 또한 긴장 완화라는 주제로 연결하고, 한국 평화를 위한 선교에 초대하려면 한국, 일본, 미국 가톨릭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質問：

韓国の平和運動は、様々な国に拠点を置く世俗的、宗教的団体の多様な連合体であり、平和のための活動で国際的、宗教間協力が増加していることは幸いなことです。国際的な組織化、多様な宗教団体の組織化は、韓国社会の内外で平和のための連帯を成長させる機会を提供しました。例えば、米国では、昨夏7月27日にワシントンDCで仏教、カトリック、プロテスタントが共にした徹夜集会を開催したり、ニューヨークの国連本部外で開かれた「コリアピースアピール」集会には韓国、米国、中国の宗教団体が参加しました。宗教と国籍を越えて連帯を広げていく過程で、カトリック教会と韓国の平和運動全般が、このような機会を利用して、朝鮮半島と周辺地域の政治指導者たちが朝鮮半島の緊張緩和の緊急性について認識し、行動するようにするには、どのようなことができますか？ このような連帯行動の次の段階にはどのような課題がありますか？ これと関連して、フィリピン、ベトナムなど太平洋一帯で軍事的緊張が高まる最前線にいる他の国のカトリック信者も緊張緩和というテーマでつなぎ、韓国の平和のための宣教に招待するには、韓国、日本、アメリカのカトリック教会はどのようなことをすべきでしょうか？



The U.S.A

Jennie Joy Telfer

Jennie Telfer is a program director at Peace Catalyst International with graduate studie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conflict and dispute resolution. For over a decade, she worked to provide direct services to survivors of war, abuse, and early childhood trauma in the United States, Africa, and Asia. She currently devotes her energy to peace education, advocacy to end the Korean War, and mobilizing the global church to stand in solidarity with Korean people for peace, reconciliation, and human flourishing for all people in North and South Korea. Jennie is originally from the United States, and she now lives with her husband in Taebaek, south Korea.

제 이름은 제니 텔퍼입니다. 저는 피스 카탈리스트 인터내셔널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유아 발달과 갈등 및 분쟁 해결을 전공했습니다. 10년 넘게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전쟁, 학대, 유아기 트라우마의 생존자들을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현재는 평화 교육,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옹호 활동, 남북한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화해, 인류 번영을 위해 세계 교회가 한국 국민과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 출신으로 현재 남편과 함께 대한민국 태백에서 살고 있습니다.

私の名前はジェニー・テルパーです。私はピース・カタリスト・インターナショナルのプログラム・ディレクターで、幼児期の発達と紛争と紛争解決を専攻しました。10年以上にわたり、アメリカ、アフリカ、アジアで戦争、虐待、幼児期のトラウマの生存者のために奉仕してきました。現在は、平和教育、朝鮮戦争終結のための提唱活動、南北のすべての人々の平和と和解、そして人類の繁栄のために、世界の教会が韓国の人々と連帯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に力を注いでいます。私はもともとアメリカ出身で、現在は夫と一緒に韓国の太白に住んでいます。



Question:

Pope Francis often emphasizes the need for us to pray and work for peace. He also speaks about the importance of accompaniment, encounter, and becoming missionary disciples. I wonder how these teachings from the top of the Church are being incorporated into the life of local parishes—particularly how laypeople are being formed to live out the peace and reconciliation teachings of Jesus in the Gospels (i.e. Matthew 5). How are the Bishops, priests, and religious equipping the faithful to be peacemakers and reconcilers in their families, parishes, communities, and nations? If we are not living and experiencing life transformation from these teachings, we are fooling ourselves with lots of talk and big meetings. As Dorothy Day said, what we need is a revolution of the heart!

I would like to ask the Korean Bishops what are the best models of formation and action being taken by the reconciliation committees in the different dioceses in Korea. Please give an honest assessment. What can local parishioners do to strengthen this work? What can Church leadership do to strengthen this work?

Are Bishops in the US or Japan seeing a significant move of God/revolution of the heart among lay people? Is there anything the Korean, Japanese, or US Bishops can teach one another about educating, equipping, and empowering parishioners to live out the peacemaking and reconciliation of Jesus.



질문 :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자주 강조하십니다. 또한 동행과 만남, 선교적 제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바티칸의 이러한 가르침이 지역 본당의 삶, 특히 평신도들이 복음서(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평화와 화해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교, 사제, 수도자들은 신자들이 가정, 본당, 지역사회, 국가 안에서 화평케 하고 화해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과 모임을 통해 겉으로만 표현할 뿐, 실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시 데이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혁명입니다!

한국 주교님들께 한국의 여러 교구에서 화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본당 신자들은 이 일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이 일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주교님들은 평신도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중요한 움직임/마음의 혁명을 목격하고 있습니까? 한국, 일본, 미국 주교가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화해와 평화를 실천하도록 교육하고, 준비시키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서로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質問：

教皇フランシスコ様は、平和のために祈り、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よく強調されます。また、同伴、出会い、宣教的な弟子になることの重要性についても語られます。バチカンのこうした教えが、地域の教区の生活、特に信徒が福音書(例えばマタイ5章)にあるイエスの平和と和解の教えを実践するために、どのように実践さ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司教、司祭、修道者たちは、信者が家庭、小教区、地域社会、国家の中で和解し、和解させる人になるためにどのように準備していますか?もし私たちがこのような教えに従って生活し、人生の変化を経験しなければ、私たちは言葉や集会を通して表面的に表現するだけで、実は自分自身を欺いていることとなります。ドロシー・デイが言ったように、私たちに必要なのは、心の革命です

韓国の司教様方に、韓国の各教区で和解委員会を構成し、活動するための最良のモデルが何であるか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率直な評価をお願いします。地域の教区の信者たちは、この仕事を強化するために何ができるでしょうか。教会の指導者たちは、この仕事を強化するために何ができるでしょうか。

アメリカや日本の司教たちは、一般信徒の間で神の重要な動き/心の革命を目指していますか? 韓国、日本、アメリカの司教たちは、一般信徒がイエスの和解と平和を実践するように教育し、準備し、力を与えるために、互いに教え合えることはありますか?



Chisono Kawakami

Hello, my name is Tomoen Kawakami. I work as a kindergarten teacher in Japan. Due to my Korean heritage, I've developed a keen interest in the peace between Japan and Korea. I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the Odusan Unification Observatory when I participated in the Japan-Korea Youth Forum, organized by the Justice and Peace Council. From the observatory, as I looked over at North Korea, I was profoundly touched by the division of our peoples, and I genuinely hoped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our two nations. I trust that this forum will serve as a meaningful time for peace.

처음 뵙겠습니다, 카와카미 치소노(川上智園)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뿌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일 평화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정의 평화위원회 주최 한일청년 플랫폼에 참여했을 때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전망대에서 북한을 보았을 때 같은 민족이 분단된 것에 가슴 아팠고, 진심으로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평화를 향해 좋은 시간 보내게 되길 바랍니다.

初めまして、川上智園と申します。日本では幼稚園教諭として働いています。私のルーツが韓国にあることから、日韓の平和について関心を寄せていました。正義と平和協議会主催の日韓青年プラットフォームに参加した時、オドゥサン統一展望台を訪れました。展望台から北朝鮮を見た時、同じ民族が分断されたことに胸が痛んだのと同時に心から平和による統一を祈りました。今回のフォーラムでも平和へ向けて良い時を過ごせるよう祈っています。



Question:

What is your perspective on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 understand there are individuals in South Korea with differing views on reunification. How can we address the concerns of those opposed to it to alleviate their apprehensions?

질문 :

한국에서는 북한과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質問 :

韓国では北朝鮮との統一を望んでいる人とそうでない人がいることを知りました。韓国と北朝鮮の統一を望まない人達の不安や恐れを解消するためにはどのようにアプローチしたら良いでしょうか。

JAPAN



Mukadi Ilunga Christian

Jesuit from the DR Congo and
Missionary to Japan
Graduate Student at Sophia
University (Tokyo-Japan)
Interests: Political Philosophy,
Philosophy of Economics, Ethics,
Arts, African Studies and Northeast
Asian Studies.

무카디 크리스찬입니다. 콩고 민주 공화
국 출신의 예수회 신학생으로 일본 선교
사이고, 소피아대학교(조치대) 대학원
학생이기도 합니다. 정치철학, 경제철학,
윤리학, 예술학, 아프리카 연구, 동북아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コンゴ民主共和国出身のイエズス会
士、日本への宣教師 上智大学大学
院生（東京）。
趣味 政治哲学、経済哲学、倫理
学、芸術学、アフリカ研究、東北ア
ジア研究。



Question:

In our contemporary world, we are facing many challenges. However,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n many parts of the world is how to achieve just peace, and reconciliation among political community or countries. How can we, as young Catholics, handle this challenge with hope in terms to achieve a more just, peaceful and reconciled global society, especially in the Northeast part of Asia.

질문 :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공정한 평화를 어떻게 달성하며, 정치 공동체나 국가 간의 화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젊은 가톨릭 신자들은 더 공정하고 평화롭고 화해된 세계 사회, 특히 동북아를 실현하기 위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질문 :

現代世界において、私たちは多くの課題に直面しています。その中で、世界の多くの地域で最も大きな課題のひとつは、いかにして公正な平和を達成し、政治的共同体や国家間の和解を実現するかということです。私たち若いカトリック信者は、より公正で平和で和解した世界社会を、特に北東アジアで実現するために、希望を持ってこの課題にどのように取り組めばよいのでしょう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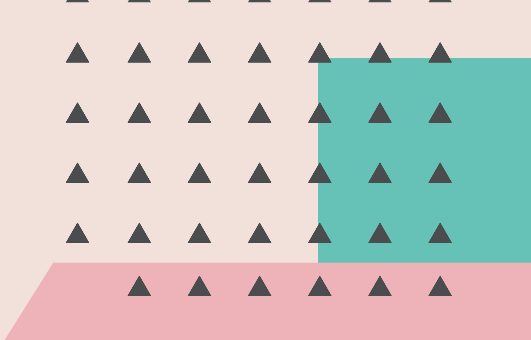


JAPAN

Minori Takeuchi

I grew up in a family with deep cultural and religious roots: my parents were devout Catholics, while my grandparents practiced Shintoism and Buddhism. Based in Tokyo, my profession involves documenting and sharing the compelling stories of individuals from my grandparents' era—those who lived through the war. Their narratives often recount encounters with Christ and the transformative journey of faith in Japan. Intriguingly, many from this generation, who once fled the Korean Peninsula, attribute their first introduction to Christianity to their time there. Delving deeper into history reveals periods when Japanese and Korean Christians united, navigating challenges and persecutions together. Inspired by the camaraderie of our forebears, my aspiration is to foster a culture of mutual understanding and engagement in Northeast Asia. Through the lens of faith, this entails drawing lessons from the past while embracing intergenerational and cross-cultural dialogues.

저는 일본인 가톨릭 신자인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제 조부모님은 각각 신도와 불교 신자입니다. 도쿄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전쟁을 경험한 조부모 세대의 사람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의 길로 인도되었는지를 듣고 기록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님 세대에는 한반도에서 피난 온 분들도 많고, 처음 그리스도인을 만난 곳이 한반도였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독교 박해 시대에도 일본과 한반도의 기독교인들은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온 역사가 있지요. 형제자매애를 나누었던 선조들의 역사를 본받아 신앙을 통해 과거로부터 배우고, 다른 세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로 부터 배우는 만남의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日本人のカトリックの両親のもとで育ちましたが、私の祖父母はそれぞれ神道信者と仏教徒です。東京で会社員として働きながら、戦争を経験した祖父母の世代の人々が日本においてどのようにキリストに出会い、信仰の道に導かれたかを聞いて書きとめ、発表する活動をしています。祖父母の世代には朝鮮半島からの引揚者も多く、初めてのキリスト者との出会いの場が朝鮮半島であったという方も少なくありません。時代を遡ればキリスト教迫害の時代にも、日本と朝鮮半島のキリスト者たちは、互いに協力し合って困難を乗り越えてきた歴史があります。先人たちの兄弟愛の歴史に倣い、信仰をもって過去から学び、異世代・異文化の人から学ぶ出会いの文化を、私たちが生きる北東アジアにおいて実現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Question:

As the next generation of Catholics, how can we enhance youth engagement and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질문 :

한국과 일본의 청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가톨릭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質問 :

韓国と日本の青年交流と協働を促進するために、私たちカトリック青年に何ができるか?



KOREA

Hanna Suh ハンナ・ヨハンナ

서한나 요한나입니다. SNU 팩트 체크 센터의 연구원이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상호 간의 이해와 공감을 촉진하는 소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일한문화교류기금 펠로십에 선정되어 일본 내 조선인 순교자 연구를 진행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교류 및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Hanna Suh, is a researcher at the SNU Fact Check Center. She also serves as an advisory member of the Committee for the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ople at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Born in Germany, she witnessed the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which deeply influenced her life and research work on promoting peace and dialogue. This year, she was honored to be selected as a recipient of the Japan-Korea Cultural Foundation Fellowship, through which she conducted research on Korean martyrs in Japan.

徐ハンナ・ヨハンナは、SNUファクトチェックセンターの研究員であり、「韓国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民族和解委員会」の諮問委員も務めております。彼女はドイツで生まれ育ち、国家の統一を目撃した経験が、彼女の生活と研究に深い影響を及ぼしました。特に南北朝鮮と韓国、そして日本を含む国際関係において、平和と対話の促進に力を注いでおります。今年、彼女は日韓文化交流基金フェロシップに選ばれ、日本での韓国殉教者に関する研究を行いました。世界中のより多くの友達が日本のカトリック聖地巡礼に来られるように引き続き努力していくつもりです。



Question:

As you are aware, both South Korea and Japan are currently grappling with high rates of youth suicide. In light of this, I respectfully request your support in establishing exchange programs that can help youth in both countries discover a more enriching and meaningful life through the joy of faith. As we prepare for the 2027 World Youth Day in South Korea, I hope to share the hosting experience with neighboring countries during the Days In the Diocese, similar to our experience in Panama. In my personal experience, I have sadly encountered the sudden suicide of a close friend and witnessed train delays in Japan due to accidents leading to loss of life. These events have led me to contemplate how I can support young individuals who have faced similar challenges or lost their enthusiasm for life. While I have been reflecting on these matters, I admit that I have not yet taken concrete actions. When discussing peace in Northeast Asia, I wish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not only historical wounds, such as the legacies of colonialism and past conflicts, but also fostering empathy for each other's current grievances. My goal is to convey a message of forgiveness and love, in line with the teachings of Jesus. However, it's crucial to acknowledge the significant challenge ahead, including the fear of being labeled a traitor or betrayer for advocating on behalf of a specific group, similar to the term "pro-Japanese."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and become effective messengers of peace, what additional efforts do you recommend?



질문 :

N포세대, 사토리 세대, 탕핑족까지 동북아지역 자포자기 청년들의 높은 자살률... 평화의 예언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모두 높은 청년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젊은이들이 신앙의 기쁨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지원해주시고, 세계청년대회 준비에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파나마대회처럼 일본에서도 교구대회 때 순례자들을 환영할 수 있다면, 한국 출신의 순교자들, 재일 코리안, 김수환 추기경님 일본 유학 이야기도 배우고, 현재 일본에서 선교 활동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갑작스런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뒤, 일본에 와서도 기차를 타고가다가 인명사고로 기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누군가의 자살 소식을 접할 때면. 이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청년들 또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도 아직 행동으로 무얼 옮기지는 못했는데요. 동북아 평화를 이야기할 때 식민지배역사와 전쟁사 등 과거 상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서로의 현재 상처에도 공감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적인 관계를 벗어나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친일이라는 말처럼 특정 집단을 옹호하는 배신자, 배반자라 낙인찍힐 듯한 두려움을 극복해야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의 예언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까요?

質問：

ご存知の通り、韓国と日本は現在、青少年の自殺率が高いという課題に直面しています。このため、私はお願い申し上げます。信仰の喜びを通じて、両国の若者がより充実した意味ある生活を見つけるのを支援するための交流プログラムの設立をお手伝い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2027年の韓国での世界青年の日（ワールドユースデー）に向けて、私は、パナマでの経験のように、隣国と協力し、「教区での日々(DID, Days in the Diocese)」の期間中にホスティングの喜びを共有でき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個人的な経験から、近い友人の突然の自殺や日本での人身事故による列車の遅延を目撃したことがあります。これらの出来事から、同様の課題に直面した若者をどのようにサポートできるかを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らの問題について考え続けていますが、具体的な行動を起こしていないことを認めます。

北東アジアで平和を議論する際、植民地主義や過去の紛争などの歴史的傷跡だけでなく、お互いの現在の不満に共感することの重要性を強調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私の目標は、イエスの教えに従い、赦しと愛のメッセージを伝えることです。ただし、特定のグループを代弁することで、「親日派」といった言葉のように、裏切り者や反逆者としてのレッテルを貼られる懸念も含め、克服すべき重要な課題があることを認識することが重要です。

これらの課題を克服し、効果的な平和の預言者/使徒となるために、どのような追加の取り組みをお勧めいただけますか？



Nanami [Annette] Uchiyama

Nice to meet you, I'm Nanami Uchiyama. My Catholic baptismal name is Annette (after Saint Anna). I live in Japan as a postulant for the Servants of the Gospel of God's Mercy. When I was an undergraduate, I participated in a symposium on peace organized by the Kro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Since graduating and starting work, I feel like I've had fewer opportunities to think about peace. At the same time, I want to delve deeper into how each of us can participate in what was once my research subject: peace.

만나서 반가워요, 우치야마 나나미입니다. 제 가톨릭 세례명은 아네트(성 안나의 이름을 따서 지음)입니다. 저는 하느님 자비의 복음의 종 선교회 지원자로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부 시절 크록(Kroc) 연구소 열린 평화 심포지움에 참가했습니다.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평화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줄어든 것 같아요. 제 연구 주제였던 평화를 위해 우리 각자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

はじめまして、内山七海です。カトリックの洗礼名はアンネットです。(聖アンナ)日本でServants of the Gospel of God's Mercyの志願者として生活しています。

学部生の時にクロック研究所の平和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に参加していました。大学を卒業してから働いている中で、平和について考える機会は減ったように感じています。同時に、これまでは研究対象だった平和を一人一人がどのように参与して行くのかという視点で深めたいと思っています。



Question:

What are the lost opportunities for the youth to engage with and to prepare themselves to pursue their career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 What are the possibilities in the Catholic Church in Japan to approach peace. The church has a collective body of immigrants as a member in much more proximity than most of the communities in Japanese society.

질문 :

젊은이들이 자신의 취업과 커리어 경력을 고려할 때 동북아 지역의 정세로 인해 상실되는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이주민이 많은 국제적 공동체로 이루어진 일본의 가톨릭 교회가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質問 :

若者がビジネスキャリアを考えるとときに、北東アジア地域の情勢によって失われている機会はどのようなものでしょうか?日本のカトリック教会は日本社会の他のコミュニティよりも国際的なグループとして構成されています。"旅人"と"定住者"が教会のメンバーとして存在する時、北東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どのような気づきがあたえら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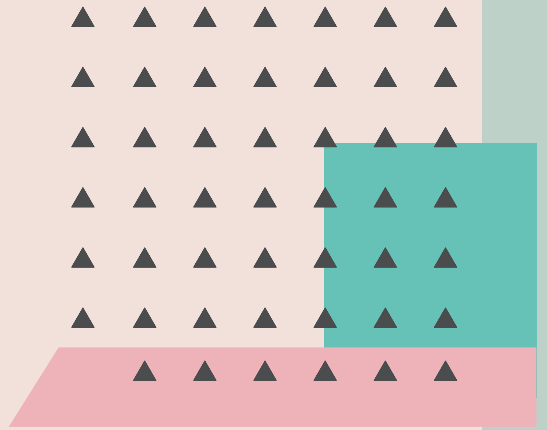


JAPAN

Keiya Yokoyama

Hello everyone! My name is Maximiliano Maria K lbe Keiya Yokoyama. Currently, I am studying theology at Sophia University, which is affiliated with the Jesuit order, located in Tokyo.

Last year, I participated in the Catholic Youth Japan-Korea Exchange Meeting, and it was a very good experience. I am looking forward to having another meaningful exchange this time. I believe that such interactions are a step toward building 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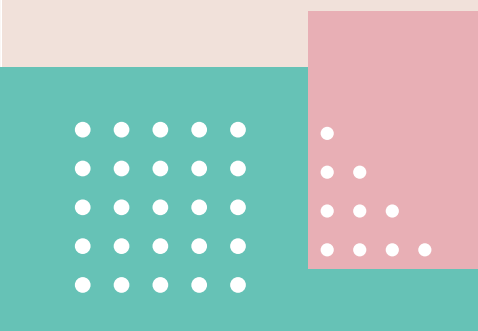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카야마 케이야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도쿄에 위치한 예수회 소피아대학교(조치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느님 자비 복음의 종 선교회가 진행한 ‘2022한일 청년교류회’에 참가했는데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의미 있는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이런 교류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みなさん初めまして！マキシミアノ・マリア・コルベ横山恵也と申します。

現在は、東京にあるイエズス会の上智大学で神学を勉強しております。

昨年、カトリックの青年の日韓交流会に参加し、とても良い経験でした。今回も良い交流ができ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交流は、平和を築く一歩になると信じています。



JAPAN

Makoto Yamada

Basic info

- Age :31 year old
- Nationality : Japanese
- Language : English
- Catholic

Growth

- Graduated Salesian Elementary school in Tokyo, called Seibi Gakuen Elementary School.
- Graduated Sophia University, Jesuit School. Bachelor of English literature and theology.
- Start working at Telecom



- Company, Mobell in UK owned by UK Catholic businessman.
- Working for NPO in Japan In addition to telecom business, working for NPO named Seibo to help hungry kids especially in Malawi. Fundraising especially with Catholic Schools all around Japan.
- Working as a volunteer with Salesian Sisters International NGO, VIDES.

Vocational Careers

- NGO in Japan fundraising for Malawi in Africa From 2017, I have been working for NPO in Japan.

I am fundraising for school feeding in Malawi.

See : <https://www.seibojapan.or.jp/?la=en>

- Mobile Service Provider

I am marketing for charity SIM cards to foreigner coming to Japan, for trip, job hunting and studying. See : <https://www.mobell.com/>

- Teaching Experiences.

Teaching English for high school students for 12 years as a part time job after my work.

Also I am teaching charity and social business online for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 International Voluntary Work, VIDES.

VIDES is international voluntary mission in Salesian Sisters. I have been working for it since I graduated my Salesian Elementary School in Tokyo.

Study

- Bachelor of English Literature in 2015.
- Bachelor of Theology in 2017.
(Awarded as the highest GPA students in 2016)

Other

In 2023, I am one of the member of International Youth Advisory Body in the Dicastery of Laity, Family and Life in Vatican. I am very proud of my job as a fundraiser in Japan for NPO, having a partnership with churches, voluntary communities and Catholic Schools. I am very interested in the strategies about how to promote Catholic spirits in society especially with the context of business and education.



Question:

As we are not familiar with the issues between Japan and Korea, we do not know what kind of role the church community can take. Could we commit in some ways using our church community or Catholic schools to implement pastoral work? If so, what kind of ways do you suggest for young people?

질문 :

저희는 일본과 한국 간의 여러가지문제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톨릭 학교를 활용하여 몇 가지 사목적 활동들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교님들의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質問 :

日本で普通に生活している中では、韓国と日本の間で共有されている課題について、意識することが多くないのが現状です。そんな中で、カトリック青年として教会という共同体を使用して、両国が持つ課題に対して、学校や教会司牧を通して、何かしら貢献をすることなどはできるのでしょうか。

KOREA



Kim, “Agatha” Yeseul

My name is Agatha Kim, but you can simply call me "Agatha". I'm an English-Korean freelance translator and am actively involved in organizing this year's CINAP Forum. My interests span various domains, with a particular fondness for reading. I am a young married individual who got married during the peak of the COVID-19 pandemic.

김예슬 아기가타입니다. 편하게 “Agatha”라고 불러주세요. 영한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며, 이번 CINAP 포럼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결혼한 기혼청년입니다.

私の名前はアガサ・キムですが、単に「アガサ」と呼んでください。英語と韓国語のフリーランス翻訳者で、今年のCINAPフォーラムの運営にも積極的に携わっています。趣味は多岐にわたりますが、特に読書が好きです。COVID-19の流行のピーク時に結婚した若い既婚者です。



Question:

What does "patriotism" look like in this era? If there are still patriots in this time, what kind of people are they? In the hugely popular tvN drama "Mr. Sunshine," se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movie "TaeGukGi: Brotherhood of War," set during the Korean War, it's clearly depicted who the "patriots" were and who were the "traitors/enemies" during those times. So, who would be considered a patriot in this so-called "peaceful" era? Sometimes I feel that all the effort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acts of patriotism, but when we fail to reach mutual agreements, I find myself wondering, "Do I really need to be patriotic?"

질문 :

지금 이 시대의 '애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대에도 애국자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크게 유행한 tvN 드라마인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 션샤인'과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 그 당시엔 어떤 자가 '애국자'이고, 어떤 자가 '매국노/적'인지 분명하게 그리고 있는데, "평화"롭다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 애국자일까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쓰는 모든 활동이 애국이 아닐까 싶다가도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에 '굳이 애국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미치기도 합니다.

質問 :

この時代の「愛国心」とはどのようなものでしょうか?この時代にも愛国者がいるとしたら、それはどのような人たちなのでしょう?日本統治時代を舞台にした大人気tvNドラマ『ミスター・サンシャイン』や、朝鮮戦争を舞台にした映画『太極旗～戦火の兄弟たち～』では、当時の「愛国者」と「裏切り者・敵対者」が明確に描かれている。では、このいわゆる「平和」な時代に、誰が愛国者と言えるのだろうか?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の努力はすべて愛国心による行為だと感じることもあるが、相互合意に至らないとき、私は "本当に愛国心が必要なのだろうか?"と考えてしまう。



KOREA
Nari, Shin

Hello, I'm Gemma Cinnari. I prefer to be called Gemma. I work as a journalist in South Korea. Until recently, peace was merely a subject I reported on. This experience provides m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how each one of us can take steps towards achieving peace. I look forward to engaging meaningfully with others passionate about peace and approaching this with an open heart and mind.

안녕하세요, 신나리 켄마입니다. 켄마라고 불리는 걸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평화는 취재할 주제이거나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참여는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평화의 한 걸음을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시간이 될거 같습니다. 평화에 관심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私はジェマ・シナーリ。ジェマと呼ばれるのが好きです。韓国で記者として働いています。今まで私にとって平和は取材するテーマや対象でした。今回の参加は、個人的に私たち一人ひとりがどのように平和の一步を築いていくかを考える時間になると思います。平和に関心を持ち、オープンな気持ちで参加する皆さんと一緒に貴重な時間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Question:

In Korea, the youth are facing immense challenges. From employment to housing, every aspect of life has become a struggle for survival. The situation is further exacerbated by the gender divide, leading to various societal issues. Having grown up in a divided nation, they've competed relentlessly, never truly experiencing peace. For many, peace is an abstract and lofty concept. How can we establish peace, and how do we persuade the younger generation that it should be our utmost priority?

질문 :

한국 청년들은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취업부터 주거, 생활까지 모두 생존의 문제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젠더갈등까지 더해져 여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단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은 평화를 느껴본적 없이 경쟁 구도속에서 생존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에게 평화란 공허하고 이상적인 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왜 평화가 첫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청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質問 :

韓国の若者は追い詰められています。就職から住居、生活まですべて生存に関わる問題として感じて生きています。ジェンダーの葛藤まで加わり、様々な社会問題が生じています。分断された国で生まれ育った彼らは、平和を感じたことがなく、競争の中で生きてきました。そのため、青年にとって平和とは空虚で理想的なテーマかもしれません。私たちがどのように平和を作り、なぜ平和が最優先事項であるべきなのか、青年たちをどのように説得す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KOREA

Minjeong Ko

Hi! This is Minejong Ko. I am not really a hard-working person, yet I like to learn new things. I majored history and sociology for my bachelor's degree, and I got a master degree on North Korea Studies. For last three years, I studied nursing and got another BA there. Some of my few publications include “ Comparison of Soviet Aid to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in the 1950s and 1960s”, “The validity of ICD-11 PTSD and complex PTSD in North Korean defectors using the International Trauma Questionnaire” and Changes in the Discourses of the Soviet Union in North Korea : Articles and Slogans in Cho-Sso Chinson. Few months ago, I became an operating room nurse and (finally) working hard to cope with the tasks given. It's been a while since I have talked about peace, so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안녕하세요! 고민정 마리아입니다. 게으르지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부는 역사학과 사회학을 전공하고, 석사는 북한학을 전공했습니다. 최근 3년 간 간호학과 학부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논문은 “Comparison of Soviet Aid to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in the 1950s and 1960s”, “The validity of ICD-11 PTSD and complex PTSD in North Korean defectors using the International Trauma Questionnaire”. “신문 「조쏘친선」 기사와 구호로 본 북한의 소련 담론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실 간호사가 되어서 막내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

こんにちは！ マリア・コ・ミンジョンです。勉強するのが好きです。学部では歴史学と社会学を専攻し、修士では北朝鮮学を専攻しました。最近3年間、看護学の学部で勉強をしました！ 執筆した論文には「Comparison of Soviet Aid to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in the 1950s and 1960s」, 「The validity of ICD-11 PTSD and complex PTSD in North Korean defectors using the International Trauma Questionnaire」, 「Changes in the Discourses of the Soviet Union in North Korea : Articles and Slogans in Cho-Sso Chinson」があります。最近手術室の看護師になって一生懸命仕事を学んでいます。久しぶりに平和について話すことができ、とても楽しみにしています！



Question:

Healthcare providers receive education about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patient safety culture." It is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enables healthcare professionals to quickly share and address or prevent personal and structural issues related to patient safety. For example, to reduce errors, it encourages healthcare professionals to openly discuss their mistakes without blaming individuals and to share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professionals, patients, and caregivers while dealing with situations fairly and openly.

I believe that such cultural elements are essential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 Korean society is often quite distant from the ideals. How about the society you are part of? Do you think this culture could actually contribute to ea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f so, how can we respond to power-based balance and peace?



질문 :

병원에서는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 안전 문화'라는 것을 구축해야 한다고 교육받습니다. 환자 안전 문화는 의료진이 환자 안전과 관련된 개인적,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를 빠르게 공유하고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진이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인을 비난하는 것을 삼가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No blame culture),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적정하게 대처하는 것(open and fair culture)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적 요소가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에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회 문화가 No blame, open and fair culture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회는 어떤가요? 이런 문화가 실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힘에 의한 균형과 평화에 대한 주장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質問：

病院では、より良い医療サービスを提供するために「患者安全文化」を構築する必要性について教育を受けます。患者安全文化は、医療従事者が患者の安全に関連する個人的および構造的な問題を素早く共有し、解決または予防できるようにする組織文化です。具体的な例として、個人を非難せずにミスを率直に話し合える環境を作り、ミスを減少させるための手続きを設けること、医療従事者と患者、介護者との情報共有を奨励し、公平かつ公正な対応を行うことが含まれます。

私は、このような文化的要素が朝鮮半島の平和にとって不可欠であると考えており、私たちの社会文化が非責任文化、公正かつ公平文化とはかけ離れている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あなたが所属している社会はどうでしょうか？このような文化が実際に朝鮮半島の緊張緩和に役立つと考えますか？もしそうであれば、力によるバランスと平和を提唱するためにどのように対処できるでしょうか？



KOREA

Heeyeon So

Hello, I'm Sohee Yeon. I was baptized in the Catholic church as 'Lucia', so I often go by the English name Lucy. I oversee the creation of websites and promotional materials at the Catholic Institut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I studied English Literature in college, but since graduating, I haven't been consistent in practicing English, so I feel like I'm starting from scratch. I believe this event will introduce me to perspectives and topics I haven't considered before. I recognize my limitations, but I am eager to learn from others and expand my horizons. Thank you for organizing this!

안녕하세요, 소희연입니다.

가톨릭 세례명이 '루시아'라서 영어이름은 Lucy라고 합니다^^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에서 홈페이지와 홍보자료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으나 졸업 이후 영어공부를 소홀히 해서 0개 국어가 되고 있습니다 T.T

이번 행사를 통해 사실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다른 분들의 생각을 통해 배우면서 저의 좁은 시야도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こんにちは、ソ・ヒョンです。

カトリックの洗礼名が「ルチア」なので、英語名はLucyです^^。

カトリック北東アジア平和研究所でホームページと広報資料の制作を担当しています。

大学では英文学を専攻しましたが、卒業後は英語の勉強を疎かにしたため、話せるのは0ヶ国語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T.T。

今回のイベントを通じて、実は一度も考えたことのないテーマについて考えるきっかけになると思います。まだまだ未熟ですが、他の方の考えを通して学びながら、私の狭い視野も広がるのではないかと期待しています。よろしく願います。



Question:

For many Korean youths, including myself, immediate concerns such as housing, employment, security, and various conflicts (intergenerational, intergender, interregional) often eclipse broader topics lik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Such subjects might seem distant and not directly relevant. Given this context, how can we make the theme of 'peace' more relatable to young individuals?

From the perspective of a young adult about to join the workforce, my thoughts on peace encompass areas like employment, health, and global conflicts.

I've observed how tensions and negative sentiments (anti-Korean, anti-Chinese, anti-Japanese) can halt international exchanges, leading to employment declines in sectors linked to imports/exports, travel agencies, airlines, and more. Exchange student programs and language initiatives can also face setbacks, restricting international mobility and thereby impacting the wider economy.

The pandemic upended my health and daily routine, underscoring the significance of peace in everyday life. Yet, as the pandemic's intensity waned slightly, global tensions, such as the Russian-Ukrainian and Palestinian-Israeli conflicts, flared up. This made me reflect, "Is lasting peace so elusive?" and prompted me to think about the delicate situation in Korea during the armistice.

I'm increasingly realizing how disruptions to peace can subtly, yet profoundly, affect our daily lives.



질문 :

저를 포함한 한국 청년들은 주거, 취업, 치안, 갈등(세대간, 남녀간, 지역간..) 등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에 대해 생각해볼 겨를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아직 와닿지 않는, 조금은 먼 화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평화’라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써 평화와 관련하여 고용, 건강, 전쟁 측면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반한, 반중, 반일감정 등으로 국가 간 교류가 중단되면 수입/수출 관련 산업 고용(+여행사, 항공 등) 이 위축되는 현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의 프로그램에도 영향이 있어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생기고 국가 경제에도 직결이 됩니다.

하물며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건강과 일상을 잃어보니,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보고 평화는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 라는 회의감과 함께 휴전 중인 우리나라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평화가 무너지는 것이 알게모르게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質問：

私を含む韓国の青年たちは、住居、就職、治安、対立(世代間、男女間、地域間...)など、目の前の問題を自分たちで解決していきただけで精いっぱい、「朝鮮半島、北東アジアの平和」について考える余裕がないと思います。青年たちにはまだピンと来ない、少し遠い話題だと思いがちです。このような状況で、青年たちに「平和」というテーマをどうしたらもっと身近に感じてもらえるでしょうか。

(私は就職準備中の青年として、平和に関連して雇用、健康、戦争の側面が思い浮かびました。

反韓、反中、反日感情などで両国間の交流が中断され、輸入/輸出関連産業の雇用(+旅行会社、航空など)が萎縮する現象をたくさん見てきました。交換留学生、語学研修などのプログラムにも影響があり、両国間の移動に制約が生じ、国家経済にも直結します。

特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という感染症で健康と日常を失ってみると、日常の中の平和の大切さを実感しました。しかしコロナが少し落ち着き、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パレスチナ-イスラエル戦争が勃発するのを見て、平和は本当に守るのが難しいのだろうか...という疑問と、停戦中の我が国の状況を思い出しました。平和が崩れることは、知らず知らずのうちに私たちの日常生活に多くの影響を与えることを改めて感じています:)



KOREA

Jeongshim Lee

Hi, I'm Jeongsim Cecilia, but you can call me Jen! It was during my participation in the Korea-Japan Youth Peace Form this year that I truly reflected on the concept of 'peace'. Through this experience, I'm looking forward to interacting with individuals from diverse nationalities and backgrounds, and delving deeper into discussions about peace.

안녕하세요? 이정심 체칠리아 입니다. 영어 이름은 Jen이에요!

올해 한일 평화 플랫폼을 참가하면서 '평화'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평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こんにちは、チェチリア・イ・ジョンシンです。英語名はJenです! 今年の日韓平和プラットフォームに参加して、「平和」について初めて真剣に考えた気がします。この機会を通じて、様々な国籍や背景を持つ人たちと出会い、平和について語り合え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



Question:

There are many cases where it is too easy to harm others in order to improve their life. Peace can easily disintegrate in everyday life.

It is more needed in this unpeaceful daily life, the love and peace that Catholicism teaches. It doesn't seem easy to love someone (even yourself) in each situation. The definition of peace given to people who are accustomed to this environment is also very different.

People say that peace can never be achieved(built?) because 'you' and 'I' have different ideas of peace. Is there really no way to be 'in peace' with each other while insisting on different types of peace?

질문 :

자기가 살기 위해 너무 쉽게 남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무너지는 평화.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사랑과 평화가 더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많이 어려워보입니다(심지어 자신조차도).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에 대한 정의도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들은 '너'와 '내'가 생각하는 평화가 서로 다르기에 절대로 평화로워질 수 없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평화를 주장하면서 서로 평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質問 :

自分が生きるために、あまりにも簡単に他人を傷つけているケースが多いです。日常の中で簡単に崩れる平和があります。カトリックの教えである愛と平和がますます必要とされています。

しかし、それぞれが置かれている状況で誰かを愛することはとても難しいようです(自分自身でさえも)。このような環境に慣れ親しんでいる人たちに与えられる平和の定義もあまりにも違います。

「あなた」と「私」が考える平和が違うので、決して平和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と人々は言います。異なる平和を主張しながら、お互いに平和になれる方法は本当はないのでしょうか?



KOREA

Kunwoo Park

Hello, I'm Gabriel Park. I serve as a young adult catechist and have a keen interest in ministering to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s passion was ignited by a serendipitous encounter and has deeply influenced my faith journey. I view this gathering, centered around the theme of peace, as a divine invitation from God, and I embrace it with joy. I'm eager to hear your insights and learn from your perspectives on peace. It's an essential element in our lives, yet often feels as elusive as the air we breathe.

안녕하세요, 박건우 가브리엘입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사목에 관심을 가지고 교리교사로 청년 시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도 아주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저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평화를 화두로 모인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하느님의 소중한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어쩌면 공기와도 같아 망각하고 있던 평화라는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こんにちは、私はガブリエル・パークです。私は発達障害者司牧に興味を持ち、カテキストとして青年時代を過ごしてきました。このような関心もごく偶然の出会いから始まり、今まで私の信仰に多くの影響を与えてくれています。平和をテーマに集まった皆さんとの出会いも、神様の大切な召命と考え、喜んで迎えたいと思います。私たちに最も必要ですが、もしかしたら空気と同じように忘れていた平和というテーマについて、皆さんの考えを聞いて学ぶ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ます。



Question:

In our capitalist society, the efficient use of limited resources is paramount. Yet, there are countless marginalized individuals and pressing issues that both society and the church should address. I believe that by focusing on the kingdom of God, the church can continue to evangelize and assist those in need without making efficiency the top priority. Northeast Asia is home to a diverse range of beliefs, not just Catholicism. How can we convey God's perspective, as opposed to the world's, to those who may not share our faith?

질문 :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모두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회와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어렵고 가난한 이들과 주제 또한 많은데요. 그래도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지역에는 비단 가톨릭 신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느님의 논리를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質問 :

資本主義を生きている私たちの社会は、限られた資源を効率的に分配して使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世の中には社会と教会が関心を持ち、世話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困難で貧しい人々やテーマもたくさんありますが、それでも教会はこのような状況で効率を優先するのではなく、神の国を考えながら福音を伝え、助けが必要なところへ行く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北東アジア地域にはカトリック信者だけが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世界の論理ではなく、神の論理を信仰を持たない人々に伝える方法は何でしょうか。



JAPAN

(左)なお

(좌)나오

(Left)Nao

Hi all! I'm Nao Masuda from Hiroshima Parish. I work for a team called "Youth Activity Planning Office" in the parish.

For me, who was born and raised in Hiroshima, "peace" is one of the familiar yet difficult themes.

Through this Now Talk, I would like to hear the thoughts of my brothers and sisters from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ink about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what peace we aim for.

안녕하세요! 히로시마 교구의 마사다 나오입니다. 평소에는 교구의 '청년활동기획실'이라는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태어나 자란 저에게 있어서, 「평화」는 친근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Now토크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온 친구들의 생각도 듣고 동북아의 현주소와 앞으로 지향해나가야 할 평화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初めまして！広島教区の益田なおです。普段は教区の「青年活動企画室」というチームで働いています。

広島のまちで生まれ育ったわたしにとって、「平和」は身近でありながらも難しいテーマのひとつです。

このNow トークを通して、韓国やアメリカから集まった同世代の青年たちの考えを聞き、北東アジアの現状について、また、目指す平和とはどのようなものか、考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JAPAN

(右)かの

(우)카노

(Right)Kano

Hello! I'm Kano Masuda from Hiroshima Diocese. I am a kindergarten teacher at Seibo (Holy Mother) kindergarten where this NOW talk is held.

The Catholic population in Japan is only 0.3%, but there are many Catholic educational institutions in Japan that help foster the "Catholic spirit" in children's minds.

In Northeast Asia, we live in harmony with people of various other religions and non-religious people. As a Catholic living here, I would like to deepen my thoughts on how I can become a peacemaker.

안녕하세요! 히로시마 교구의 마스다 카노입니다. 이 NOW 토크가 열리고 있는 성모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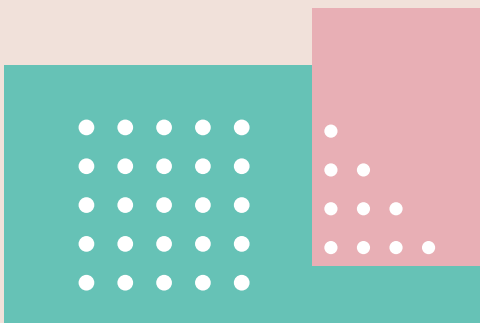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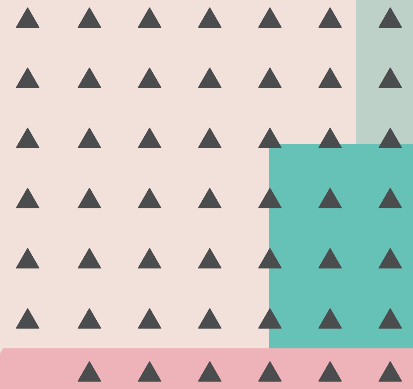
일본의 가톨릭 인구는 총인구의 0.3%에 불과하지만, 일본에는 많은 가톨릭계 교육기관들이 있어 아이들의 마음에 '가톨릭 정신'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무신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가톨릭 신자로서 어떻게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더 깊이 생각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こんにちは！広島教区の益田かのです。このNOWトークが開催されている、聖母幼稚園で幼稚園教諭をしています。

日本におけるカトリック人口は0.3%に過ぎませんが、日本には多くのカトリック系の教育機関があり、子どもたちの心に「カトリックの精神」を育む一助となっています。

北東アジアにおいて、私たちは他の様々な宗教を持つ人々、そして無宗教の人々と共生しています。この地に生きるカトリック信者として、どのように平和を実現する者となれるか、考えを深めたいと思います。



MEMO

MEMO

Co-hosted by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Committee for the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ople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CATHOLIC INSTITUTE OF NORTHEAST ASIA PEACE

Sponsor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경기도
GYEONGGI-DO